

만남

12

2023

통권 59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성탄, 그 낮아짐의 은총을 바라보며 김운성

특별기고

04 인생의 끝에서도 임마누엘 김병삼

06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임성빈

04



09

야곱의 우물가

09 이젠 “크리스천” 당당히 말하죠 다미안 나탈리

12 돈이란 이상 좇던 날 바꾼 큰 사랑 박태상

13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동춘

14 하나님 주신 인생이란 오선지 이동훈

16 예리한 검갈던 오이코스 말씀 박채아

영락의 울타리

18 베드로부를 섬기며 김진재

20 우리 구역예배, 작은 천국이 거기에... 노옥연

22 2024 영락 캘린더 확 젊어졌다 이주형

23 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인미

26 추워지면...뇌졸중 조심 장인복

교회표어

말씀 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만남

2023년 12월호 통권 598호



38

땅끝까지 이르러

- 28 일상이 된 공습 '통곡의 가자' 김정혁·유세영
- 34 직장인 버스킹 음악회 인 미

다음세대

- 36 취업 면접 '나만의 스토리' 준비하라 김용진
- 38 '도전! 성경 골든벨' 퀴즈 풀며 신앙 더 깊어져 도현진

문화광장

- 40 피를 나눈 형제 박성은
- 41 2023 북적북적 공모전
- 44 리더의 큰 걸음, 작은 일 실천부터 한아엘
- 47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준비된 리더였다 이다임
- 50 갈릴리찬양대, 23일 성탄절 음악회 조성환

교회소식

- 52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외
- 60 아들 안아준 아버지의 양손 정재원
- 61 영락시어터 12월 상영 영화

12월 목회력

- 01 금 • 연합 및 금요권찰모임 하반기 종강
- 02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3 주일 •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창립 78주년, 임직식
- 10 주일 •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 17 주일 •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 24 주일 •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유아세례식, 심방준비회
- 25 월 • 성탄절, 전세대가 함께하는 성탄예배
- 31 주일 • 은퇴식

표지설명

12월은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창립을 기념하는 기쁨과 은혜의 달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중에 오셔서 임마누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이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그 낮아짐의 은총을 바라보며

김운성 위임목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5~7)**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감사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12월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달입니다. 한 해를 제대로 살지 못한 아쉬움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까지도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해소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고 치료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으니, 가장 먼 여행이요, 가장 낮은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낮은 데로 오셨다는 것은 복음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낮은 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데로 오셨다면, 낮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 예수님의 성탄은 낮은 데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잡이로 온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연약하며 자녀도 없는 은퇴한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된 마리아는 갈릴리의 변방인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는데, 이로 보아 나사렛은 소외된 변방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 역시 나사렛의 젊은이였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아스의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에 의하면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기에, 예수님께서도 장자가 부친의 직업

낮은 데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 낮음의 영성 되새겨야

을 가업으로 잇는 당시 관례를 따라 목수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이들은 목자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유목이 보편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천시한 것은 특이합니다. 이들은 한밤에도 집에서 잠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고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동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박사들은 아마도 점성술사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았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천대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가셨을 때 만난 시므온과 안나 역시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 탄생에 즈음하여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소외되고, 낮은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역시 낮은 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병자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자는 그 자체로 낮은 자입니다. 고통이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님께서서 당시 떠돌며 굶주리던 이들의 친구이셨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드물게 등장하는 이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환대하지는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는 어찌면 불편했을지도 모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기복주의적 복음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면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큰 교회의 목사가 된 이들의 이야기, 어려운 중에 시작하여 거부가 된 이들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복음은 성공신화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복음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것으로 그쳤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섬김보다 보이기 위한 섬김이 많아졌습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된 후에 소위 대단한(?) 인물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치인을 비롯 각계에 이름을 날리는 이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낮음의 영성을 잇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종종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마음을 그분들을 통해 정화해 주시곤 했습니다. 몹시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게 거룩한 자극을 주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희망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한 경직 목사님의 영성 역시 낮아짐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남**



인생의 끝에서도 임마누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증하기 위해 애써 왔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증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예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역사적 예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현재적 예수’를 잊고 있던 것은 아닐까? 부활하신 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을 말이다.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

건을 통해 비로소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열두 명은 거짓말로 채 삼 주를 버티지 못했다. 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진리를 선포했다. 거짓말로는 오래 버틸 수 없던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무려 40년을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걸 잃은 후에야 보이는 하나님의 품

메시지성경은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끝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사라진 것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괴로워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변화된 인생을 고백하게 된다.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담임
 (사)월드휴먼브리지 대표
 하늘다리호스피스 이사장

성탄절,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 딱 좋은 날

성탄절이 바로 이 고백의 날이다. 이날에 우리는 우리 삶을 새로이 채우려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을 만난다. 복음!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이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로 친히 오셨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이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사명만을 남기지는 않으셨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함께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이전 이사야서에 먼저 등장한다.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 사상은 ‘남은 자’의 개념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며, 세상의 변화에 상관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래 의미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구세주의 놀라운 축복이다. 인생의 나락, 환란, 고통 속에서도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소망이다. 친히 임마누엘, 복음의 메시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할 터이니,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메시지가 되어라!”

그러나 우리는 메시지가 되기는커녕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누일 여관을 찾지 못했다. 이 ‘여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루마’는 ‘게스트 하우스’나 ‘객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여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정의 손님 묵는 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관이든, 가정의 손님 묵는 방이든 베들레헴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맞으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두드렸던 문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인생의 괴로움을 돌아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희가 메시지가 되라”는 세미한 음성 들길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힘들어했고, 주님께 애절하게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로 사용하셨다. 아니, 그 가시로 인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그 가시를 통해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는 바울의 간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계신다. 특히 인생의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가시로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이다. 그 음성을 알아챈다면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삶의 고통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으로 인해 역동적인 메시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선물로 오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 **만남**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 위기의 징후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응축적인 성장을 한 교회로 대한민국의 급격한 발전 역사에도 일정 부분의 참여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더욱 확연히 부각되는 사회적 공신력 하락과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 부족하였다는 여론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년이나 지속된 재난 상황으로 모이지 못했던 교회는 그 이후로 예전 상황

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적지 않은 교회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교회이탈 기독교인)’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교회 현상이 40대 이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교회의 미래를 더욱 염려하게 합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의 수 감소, 헌신/헌금의 감소, 교회 공동체 건강성 약화, 교회들 사이의 양극화, 교단/총회 등에 대한 불신 증가 등이, 또한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공신력과 이미지의 저하가 오늘 교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들입니다.



임성빈 목사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과 교수
장신대 전 총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연히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는 결코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신앙’에 있습니다. 즉,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 신앙

인의 신앙인답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연합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의 내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안전들과 관심 사안들을 주목할 때 더욱 확연하여집니다. 신앙 공동체, 조직과 제도적 구조의 차원에서 신앙인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과 교회의 부족함이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공성이 부족한 교회라는 비판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교인들의 열패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도 신실한 신앙인됨, 즉 신앙인으로서의 장성함에 이름이 무엇인지, 그러한 물음의 의미와 내용이 도전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도전이 매우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양적,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역동성과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도 여전히 상당합니다. 세계선교에서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를 위하여 쏟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가 허락한 풍성한 선물들과 그 선물-영적, 인적, 물질 자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함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책무감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수백만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교육받으며 나름대로 봉사해 힘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 안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12척'보다 훨씬 많은 자원들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슬 서말'을 '하나로 꿰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성화의 과정을 재촉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교회공동체, 온전한 제도적 기구로서의 교회됨을 향한 새 출발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더욱 신앙인다워짐, 즉 장성한 신앙인 됨이며,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다워짐, 사회적 기구로서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공동선 추구에 모델이 되는 공공적 기구로서의 교회됨을 이룹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즉 성숙한 신앙인과, '교회다운 교회' 즉 건강한 신앙공동체이자 제도적 기구로서의 교회는 서로 유기적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온전한 신앙인됨과 교회됨이 하나님 나라와 그 시민됨에 속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온전함을 향한 '열망'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3~17)

향후 10년...한국 교회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에게 희망이 아직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교회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엔 그리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도 이미 탈종교화 시대로 이미

진입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교회 신뢰도가 급속하게 하락하여, 이로 인한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증가가 가속화하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인 MZ세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는 곧 한국 교회 성장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자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수혜자이자 경험자인 기성세대들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 섬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성 세대들의 관점에서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냥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10년을 한국 교회 희망 세움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이 '교인'이라는 호칭을 받아들일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속화와 탈기독교시대를 경험한 캐나다와 미국 등의 예를 참조할 때 이들이 '가나안 교인'에서 곧 '무종교인'으로 바뀔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MZ 세대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고착되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향후 10년 안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남**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던 나 이젠 “크리스천” 당당히 말하죠

호산나찬양대는 2004년 일본 순회 연주 중에 다마가와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마가와학원 또한 영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호산나찬양대는 진심으로 일본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다마가와학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귀한 그리스도 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 다마가와학원은 수학여행 때마다 영락교회를 방문하는 전통을 만들었으며, 올해가 16번째 입니다. 이날 간증한 다마가와 학생과 호산나 찬양대원의 글을 공유합니다.



영락교회 본당 앞에 선 다마가와 학생들

모태신앙이던 나, 교회 멀어지며 가족과 갈등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성경 이야기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재미나게 알려주셔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갔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교회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

상생활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제까지 학교, 가족, 그리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특히 가족 관계가 힘들었고, 아버지가 과로로 입원하게 된 때에는 학교를 사립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 많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션스쿨인 다마가와성결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매주일 교회에 나가고, 크리스천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HiBA 모임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세례를 받은 순간은 무엇보다 감사한 순간이었지요.

미션高 진학하며 믿음친구들 생기고 세례 받아

사람들 간의 사랑에는 다툼, 배신, 갈등 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며, 이를 받아 죽음과 외로움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올해 4월 HiBA 캠프에 참여한 후,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곳에서는 마음껏 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친구 고등학생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크리스천 친구들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캠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전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얘기하면 바보 취급 당하기 일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나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며,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기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제 초대에 응해 교회에 왔고, “재미있었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다르게 여기는 주변의 시선에 조금씩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낮아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보로 여기거나 비판받을까봐 걱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또 그런 상황이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실텐데’ 생각하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만, 비판이나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두려웠고, 나 자신의 나약함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 믿음의 불안, 나약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원들과 함께한 다마가와 학생들





1



2



3



4

1 다마가와 학생들을 위해 증보기도하는 호산나찬양대 박용준 목사님 2 필자인 다미안 나탈리
3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다마가와 학생들 4 일본어 특송하는 호산나찬양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하나님 사랑받는 내 일상 알리고 싶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직접 전도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너의 모습을 본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는 조언을 캠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내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보고자 했습니다. 저의 작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축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고, 크리스천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 하소서, 내가 듣고 있나이다” (사무엘상 3:9)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안남**

글 다미안 나탈리_다마가와여고 2학년

돈이란 이상 좇던 날 바꾼 큰 사랑

메마른 허상 찾아 헤매다 합창단과 인연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마가와성결학원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찾아온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해외 순회 연주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저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메마른 이상을 좇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재물'이었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좇던 동안, 실패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술자리 등으로 소비하고, 믿음도 사라지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日순회연주 중 성도들 베품에 큰 감명

나중에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받은 따뜻한 사랑에 빠져 합창단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합창단에서 일본의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순회 연주하러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어렵게 교회를 유지하고 키우려 노력하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

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함께 감동하며 힘을 얻었다고 해주셨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순회 연주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제 인생의 목표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좇지 않는 대신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는 방법과 감동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하니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경험

여러분,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제빵사, 회사원, 디자이너, 개발자, 돈, 재물, 혹은 맛있는 음식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필요도 인생의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믿음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목표로 삼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 되며, 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퇴는 타이어를 새로 갈아끼우는 일

신앙의 여정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영락교회에 발을 들여놓은지 오십여 년이 지났고, 이제 장로 은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내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은퇴는 마감기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영어 'Retire'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고 원동력을 찾아 다시 힘찬 출발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돼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작은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기본적인 주님의 사역에 다시 부르시는 '콜링'에 '아멘'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움과 힘들 때마다 위로와 기도로 지지해 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 향해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

저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며, 수없이 빚진 은혜를 남은 삶을 통해 갚아나가기로 다짐합니다. 제게 주어진 사역을 돌아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복이며,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알아 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은퇴 후에도 오직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길을 동행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향으로 이어지는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지동춘 장로
안양·수원교구



하나님 주신 인생이란 오선지 기쁨·은혜의 음표로 채워졌길...

벌써 안수집사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동심에 젖어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지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몹시 낯설다. 칠십이라는 언덕에 올라와 보니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기쁨: 영락은 안식처이자 그리운 큰 벗

지금까지 영락교회와 함께 한 신앙생활은 나에게 최고의 안식과 기쁨이었다. 영락교회는 먼 곳에 있는 큰 벗과 같았다. 나는 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또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있어도 그 벗을 그리워하며 찾아간다. 그곳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 거스를 수 없지만, 차라리 쉼 없이 흐르는 시간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이었다. 그것은 사도바울 선생님의 기나긴 전도 여정에서 나타난 고난의 기쁨 같았다. 그리스도와 동행한 상생(相生)의 기쁨이요 위안이었으리라.

축복: 사명 주시고 천직과 건강까지 허락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족, 친척, 친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천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40년 전 주례를 맡아주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혼(成婚)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물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 때 인생의 오선지를 건네주시며 좋은 음악을 작곡하게 하신 것 같다. 그동안 내가 그린 악보가 과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면 볼품없이 찢겨어 휴지통에 던져졌지는 알 수 없지만, 부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동훈 안수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봉사: 차라리 은총의 안식이었다

지금까지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고등부, 대학부, 뉴코리아국제학교, 홍보출판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해 왔다. 봉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은총의 안식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을 느낄 수 있었고, 기독교청년들과 학생들의 선교적 열망을 보게 되었다. 또한 자유인 학생들과의 활동을 통해 동포의 소중함을 체험했으며, 교회 월간지 『만남』을 통해 문서선교의 놀라운 힘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봉사활동은 영육의 강건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과 평안이 되었다. 몸과 마음은 부드러운 봄바람에 날아가는 꽃잎처럼 가벼웠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인가 보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11)

은혜: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비기독교인인지에 관한 고민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이 결여된 사람인지에 관한 고뇌는 종종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서 나의 실존을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로마서 8:2)

언젠가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욥기 33장에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 ①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가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것이요 (25절), ② 그 영혼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30절), ③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33절)

감사: 교회인생 2막장은 오직 선교

안수집사 은퇴는 '신앙생활의 종착역에 도착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충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명을 이행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나는 능동적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하여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불확실한 인생의 장막이 걷히는 날에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향해 뛰어노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만남**

예리한 검같은 오이코스 말씀 성전서 직접 들으니 더 은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다 교회에 실망

9월 말에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영락교회 성도가 된 박채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20대 때 미국에서 생활하며 다니던 교회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부분이 흑인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족 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어서 교회에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형식적인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얼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입술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라 칭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가족 중심인 모습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교회 공동체가 마냥 싫어졌습니다.

큰 환란 후 절박함으로 다시 찾은 예수

지금 돌이켜보면,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부족했으며,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수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2년 전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김운성 목사님의 오이코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말씀이었지만, 예리한 검과 같이 명료하게 와닿았고, 전보다 깊이 있는 지성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뒤에 영락교회를 찾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듣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고, 영



락교회 교인들을 통해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혼자 교회 앞마당에 서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락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제·봉사하며 예수님 사랑 나누고 싶어

아직은 아는 분이 많이 없어서 예배 이외에 교제나 봉사를 하고 있진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이 앞서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저에게 맞는 사역이나 봉사를 통해, 희망 없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고립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힘들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만남**

대입·취업 재도전하는 벗님들 모인 베드로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섬기라는 말씀 주셨죠



라이언 일병 한 명을 위해 구출팀을 파견하듯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 아이오와주 시골에 있는 한 가정에 미국 육군 장교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군 중 목사였던 한 장교가 집 앞으로 마중 나온 여성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네 아들 중 세 명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 당시의 미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실이 안타까워 라이언 가문의 막내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덟 명으로 구성된 구출팀을 보냈습니다. 이 팀의 임무는 오직 하나, 라이언 일병을 최전선에서 구출해오는 것. 1998년에 개봉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장교들이 한 병사를 구출한다는 것이 대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열광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부 부흥이 자칫 N수생 늘릴까 딜레마

올해, 저는 베드로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부는 교육부의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부는 N수생과 취업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서에서 부흥을 기대하며 사역을 펼쳐나가지만, 부흥을 소망한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재수생을 배출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끌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약 일 년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김진재 전도사
강북·도봉교구
베드로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다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큰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목자의 선택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자’,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수능과 다른 시험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을 도와보자’ 속도는 조금 더딜지라도, 이제 우리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방향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구출팀이 파견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베드로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며 위로의 통로가 되자

베드로부 공동체의 주요 활동은 기도와 선교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벗님(청년을 부르는 호칭)들을 위해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중에는 치열한 입시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벗님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베드로부의 교사와 선배들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영혼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생동감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벗님들은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업에 정진하려는 신기한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능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벗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부의 전도사로서, 이 모든 것은 공

동체의 진실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후배들의 입시와 취업 재도전을 가장 잘 이해하기에, 교사와 선배들은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베드로부는 아주 귀중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벗님들 위한 기도·선교에 열심

베드로부에서 얻은 깨달음은 비단 우리 부서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찾아다니며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부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굳게 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부의 끊임없는 도전과 선교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우리 구역예배, 작은 천국이 거기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42)



노옥연 권사
노원교구 29구역

노원교구 29구역 어느 비오는 날 구역예배 풍경

11월 6일,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지만 먼 곳에서 오시는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며 떡집에서 세 가지 종류의 떡을 구입하고 최혜순 은퇴권사님 댁에 도착했다. 최 권사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고, 양주에 사시는 구역장 원혜영 권사님께서서는 벌써 도착해 최 권사님과 함께 준비하고 계셨다. “땡땡” 구리 갈매에 사시는 김혜숙 은퇴권사님께서서는 묵직한 가방(단감과 대추를 듬뿍 넣은)을 메시고, 따님인 정소원 권사님과 정지원 권사님과 함께 오셨다. 뒤이어 진접에서 오신 김미자 권사님께서서는 집에서 구운 많은 양의 계란을 들고 오셨고, 홍금순 권사님께서서는 과일로 가득 찬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오셨다. “살롬” 서로 반갑게 인사한 후, 구역장께서는 “문향이 집사



님은 손주 보느라 못 오셨고, 전미영 집사님께서서는 조금 늦을 것이니 찬양하면서 기다리자” 하셨다. 우리는 정답게 둘러앉아 돌아가며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니 은혜가 충만했다. 전미영 집사님도 도착하고 아홉 식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함지박 가득 담긴 과일을 보신 최혜순 권사님께서서는 “우리 추수감사예배, 구역예배 함께 드리자” 하셨다. “네~”

기도대장 최혜순 권사님덕서 9명 소중한 예배

구역장 권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사도신경, 찬송가 370장, 구역장님 기도 후 사도행전 10장을 돌아가며 차례대로 읽었다. 그 후에 김운성 목사님의 11월 6일 오이코스 말씀을 들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울이 바울 되어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거자이자 전파자로서 목숨까지 바쳤다는 말씀이었다. 목사님 말씀 후에는 개인 묵상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식사 시간! 식사기도하시는 김혜숙 권사님께서 전쟁 중에 힘들고 굶주린 지구촌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자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화답했다.

손수 가져 온 과일·구운계란에 팔죽 들며 교제

최혜순 권사님께서 만드신 팔죽(맛은 말해 뭐 하라), 백

김치(이 맛 또한 잊지 못하리), 그리고 샐러드는 정말 맛 있었다. 김혜숙 권사님께서서는 아홉 가지 과일을 가져오셔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맞아요. 권사님!!” 맛장구를 쳐가며 웃었다. 커피타임에는 삶은 밤의 껍질을 벗겨 서로에게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고, 다 같이 ‘은혜’ 찬양을 부르며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설거지하시는 뒷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음식을 봉지 봉지 싸 주신 최권사님께서서는 헤어짐이 못내 아쉬우신지 불편한 다리로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셨다. “권사님 피곤하실 텐데 편히 쉬세요”

넘치는 사랑 나누는 구역식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원혜영 구역장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권사님은 믿음은 물론이요 성실함과 어른 공경의 모범이며, 구역 식구들을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우리 구역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은 구역장 권사님의 섬김과 은혜 덕분이다. 물론 매번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기도 대장 최혜순 권사님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 그 분은 건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멀리 사시더라도 구역 식구들을 초대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우리 구역의 든든한 어른이시다, 우리 구역은 매달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구역예배를 드린답니다. **만남**

2024 영락 캘린더 확 젊어졌다



생명의 말씀과 제철 꽃 세련된 디자인
꽃그림 따라가면 말씀 저절로 묵상하게
벽걸이·탁상용 2종... 1일부터 배포 중

2024년을 함께 맞이할 특별한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력은 홍보출판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담아, 영락교회의 교인들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력을 통해 매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에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디자인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판형을 날씬하게 조정 했으며, 교회 달력을 실내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자주 보고 싶은 아름다운 달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1일(금요일)부터 배포 중이니,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이 작은 선물이 영락의 각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그 쓰임이 다하기를 바랍니다.

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 보태니컬아트작가 제니 리



아! 2024년 달력에 꽃이 피었다. 고개숙여 하단에 '영락교회'라고 적힌 글씨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라고 적힌 섬세함을 발견하고, 꽃을 만나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모든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루 20시간씩 작업하는 보태니컬아트작가. 그녀를 만나본다.

취재 인미기자

때에 따라 향기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새엔 주님의 사랑이
말씀엔 은혜가 가득
2024년
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겠습니다.



영락이여, 올라가라
영광왕국이 임하는 날
우리가 올라가리라
영락이여, 올라가라
영광왕국이 임하는 날
우리가 올라가리라

글 이주형 집사_홍보출판부 홍보위원장

선교사 아버지 따라 중학생때 아프리카로

1995년,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아빠와 엄마를 따라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전에 큰아버지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 선교사로 가셨었는데, 만나러 가셨다가 모잠비크로 선교를 결단하셨어요. 당시 우리 가족은 초중고 딸 셋이었는데, 막상 아프리카에 도착해보니 모잠비크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은 고민 끝에

우리 셋을 남아공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당시에는 사춘기였고, 가족이 흩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식물원’ 남아공서 그림공부

5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술 교육도 완전 영국 시스템이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대로 미술을 배웠답니다. 그 후 남아공 대학에서 인테리어와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텍스타일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 패턴들이 모두 꽃 그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서 본 낯선 장르 ‘보태니컬 아트’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한 이유는 바로 남아공에서 자란 경험인 것 같아요. 그곳은 마치 ‘하나님의 식물원’ 같은 곳이었어요. 언제나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식물과 꽃. 남아공에서 방학 때마다, 우리 세 자매는 언제나 그리운 아빠와 엄마가 계신 모잠비크로 달려갔는데, 늘 육로로 갔어요. 돈 아끼느라 비행기로 못 가고, 케이프타운 광활한 곳에서 시작해서 모잠비크로 쪽 올라가는 길은 약 2,000km를 차로 달리는 긴 여정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수많은 식물이 끊임없이 펼쳐져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삭막해지면, 그때 모잠비크에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남아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7대 식물원이 있는데, 꽃의 종류도 4,000종이 넘으니, 제가 평생을 그려도 다 못 그릴 정도죠.

화가 꿈꾸던 내겐 이미 준비된 분야

보태니컬 아트(Botanical Art)는 ‘식물’을 뜻하는

‘Botanical’과 미술, 예술, 회화’의 의미를 가진 ‘Art’가 결합한 용어로, 정확하게는 ‘식물 세밀화’를 뜻합니다. 남아공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대 중반에 혼자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보태니컬 아트 작품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아, 저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플로리스트가 될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될까?’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결국 식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선택했지요. 저를 어릴 때부터 아는 분들은 아마도 이 일을 선택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예요. 낯선 장르긴 했지만 이미 꽃도 배웠고 그림도 공부했으니 ‘여호와 이레!’ 바로 준비된 보태니컬 아트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식물 세밀화 책 내며 “여호와 이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식물이 많이 비유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성서 식물 세밀화 책을 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제주도 유일하게 성서 식물원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단단히 기도를 쌓아 올렸고, 연락도 없이 항공권 끊어 제

주도로 향했습니다. 만나보니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조성에 관여하셨던 전문가 목사님 부부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1년간 제주를 오가며 완성한 작품이 『나의 성서 식물 색연필 컬러링북』이었어요. 그 책에 담긴 24점은 <제주 성서 식물원 비블리아>에서 자라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린 작품입니다. 날마다 식물이 자라듯이,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서하시느 일을 보는 것이 제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세계 꽃이란 곧 ‘하나님 아빠’예요

세계 꽃이란 곧 ‘하나님 아빠’와 같습니다. 식물을 그리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했어요. 뭔가 공허하고 슬퍼져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나누고 다니며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랫동안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 식물을 보고 꽃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가와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꽃과 식물을 통해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삶에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동시에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전시하게 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작품보다, 재능으로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에 출석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고,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기쁨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꽃을 그리며 삶의 감사 넘치죠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 차. 남편과 함께 모잠비크에 식물원과 예술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인 남편은 꽃을 배우다 만났죠. 독일에서 탄 자 격증을 갖춘 실력자인데, ‘에덴동산’을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제 꿈은 모잠비크에 예술학교를 짓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포르투갈 식민지로 꿈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푸른 생명 가득한 식물원과 예술학교를 짓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처럼, 저희도 가장 왕성한 시기에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영락성도님들 은혜로운 한 해 맞길...

꽃의 다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가 아닐까요? 누구나 보는 순간 ‘아름답다’라고 느끼니까요. 그렇다면 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꽃을 보며 느끼는 그 마음이 진짜 선물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작은 작품으로라도 영락교회의 소중한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눈 흐릿하고 두통·어지럼증... 뇌졸중 전조증상 의심해야

추워지면 뇌혈관 막히거나 터지기 쉬워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가을이 계속되나 싶더니,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 겨울이 바로 앞에 다가온 것 같다. 번덕스러운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외에도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국민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쓰러지고,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는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갑자기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되어 정신 기능 저하, 사지 마비 등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한국인 사망률 암 이어 2위 ‘침묵의 병’

흡연, 과음, 비만, 스트레스, 기름지거나 짠 음식 섭취 등 나쁜 생활습관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뇌졸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뇌

졸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느낌이 둔해지는 경우, 눈이 흐려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럽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의료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비상약(우황청심원 등)을 먹이거나 민간요법을 취하는 일로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먹이면 기도를 막아 더욱 위험해질 수 있고, 혈압약 복용은 혈압을 급격하게 낮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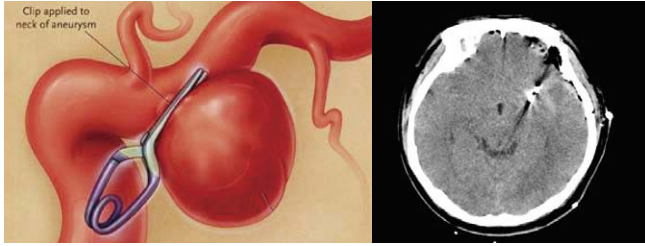
뇌졸중이라 하면 흔히 풍(뇌경색)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 ②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에 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치료 골든타임 3시간...전문병원 빨리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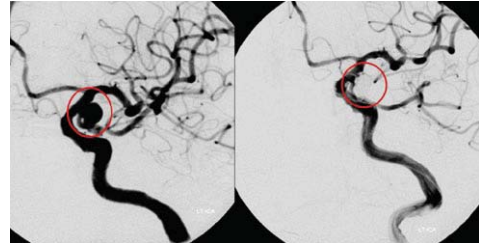
뇌동맥류(파리)는 혈관벽의 일부가 약하게 되어 혈관벽이 늘어나 파리모양으로 부풀어 나온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CT나 MRI를 이용한 혈관 촬영으로 미파열된 동맥류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 뇌동맥류 치료는 뇌동맥류 클립결찰술과 뇌혈관내 수술(혈관색전술)을 통해 수행된다.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은 미세현미경을 사용하여 뇌동맥류 경부에 클립(핀)을 적용하여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요즘은 두피나 두개골을 절제하지 않고도 혈관을 통해 미세도



강인복 강로
한림대성심병원 신경외과
남서울평촌교회



좌: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모습, 우: 수술 후 CT 사진



좌: 동맥류 (동그라미)가 혈관조영술에서 발견됨
우: 코일 색전술로 동맥류를 치료한 모습

관을 뇌동맥류에 배치하고 동맥류 내에 백금코일을 채워 넣어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반응이 좋은 편이다.

치료보다 예방... 금연은 기본, 규칙적 운동 좋아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혈관 내벽에 지질을 함유한 세포가 축적되고 평활근 세포, 섬유조직이 증식되어 뇌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로, “죽상경화성 혈전증”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혈관 속에서 생긴 혈전(피떡)이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이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매우 급한 응급 상황이다. 뇌는 5분만 혈류공급이 중단되어도 손상이 시작되므로 혈관 폐색이 의심되면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정맥 내에 약물을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20% 이내로 적고, 그나마 병원에서 검사하는 도중에 3시간을 넘겨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가능한 빨리 뇌혈관 전문팀이 있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도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도 약 30%의 환자만 혈관이 재개통된다. 이 경우 혈관조영술이나 MRI를 사용하여 막힌 혈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뇌 손상 정도를 고려하

여 혈전을 제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는 뇌동맥 내에 미세도관을 삽입하고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약물, 미세도관, 풍선 또는 혈전 제거 기구를 사용하여 시술한다. 이러한 시술은 정맥 내로 혈전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치료와 달리 직접 막힌 동맥에 접근하여 치료하므로 혈관 재개통률이 높고 효과도 좋은 편이다.

이외에 ‘일과성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했다가 후유증 없이 수 분 내에 또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뇌졸중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혈전 억제 약물을 사용한다. 항혈소판제로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트립플루살, 실로스타졸 등이 있고 심부정맥이 있는 경우 엔와파린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물 치료 외에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음식은 짜지 않게 하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며 고지방식품(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고기)은 피하도록 한다.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은 주 3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정상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남**



전쟁 발발후 매주 화요일 저녁 현지 성도들 기도모임 인도-브엘셰바 사역 센터

I s r a e l

해 외 선 교

일상이 된 공습 ‘통곡의 가자’ “이곳이 주 날개 밑” 선교소명 불꽃

- 김정혁 선교사 가족이 전하는 ‘가자 현장’

이스라엘 전쟁 발발 후 TV 매체 등 언론에서 갖가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직후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전용기를 띄워 한국대사관을 통해 성지 순례 관광객을 비롯한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을 입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입국을 거부하고 지금도 현지에 남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처절한 현장 구석구석 생명을 찾아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교회 김정혁 선교사가 있다. 그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온 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전쟁 상황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온 가족이 생명을 걸고 소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김정혁 선교사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피난처소 아드하쉬모나

오늘은 더 심해진 공습

가자지구의 죄 없는 어린이들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세 살, 네 살 두 아이가 사망한 부모를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방치된다.

머리가 터진 네 살 형이 당혹해하며 스스로 지혈하는 옆에, 동생은 링거 수액 맞고 있다.

무시로 시작된 로켓 공습에 동생을 옮겨야 하는 형인 데 어쩔 줄 몰라 울고 주저앉아 통곡한다.

주변에는 이 어린 형제를 도와줄 부모도, 어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을 남긴 채 다국적 의료인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장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아이들 옆을 지켜야 합니다!

눈앞에서 포탄 광! ...가자 인접 도시들 초토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두 달째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가정이 거주하는 곳, 이스라엘 남부 브엘세바 11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쪽 저 멀리 30km 떨어진 가자 지구 지평선이 눈에 보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측 전투기의 굉음이 도시를 삼키고, 맹렬한 폭음과 로켓 공습이 양쪽 진영에서 벌어집니다. 여섯 식구가 식탁에 앉아 편하게 예배할 수도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도 없고,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날아드는 로켓 공습으로 방공호 피신은 일상이 된 전쟁터의 삶이지만, 이곳에 사는 여러 민족을 향한 주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진영 1,400여 명이 하마스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었고, 수백 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로 끌려갔습니다. 가자 지구에 인접한 이스라엘 마을과 도시들은 하마스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저희가 사는 브엘세바까지 하마스 세력이 침투했기 때문에 긴장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 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남부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하마스의 공습으로 파괴되고 초토화되었으며, 스테로트와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교인 가정 여러 곳도 불에 타서 전소되었습니다. 남부 이스라엘 16만 명, 북쪽의 5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안전지역으로 구분된 예루살렘(제2전선 지역)과 동쪽 사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브엘세바 시민들도 예루살렘 지역으로 떠나고, 외국인들은 인접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브엘세바에 남아 성도들과 함께 안전 수칙을 지키며 이 시기를 이겨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로켓 공습이 있을 때마다, 아내와 네 명의 아들과 함께 방공호에 머물면서 기도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노아(17세)와 호산나(15세)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애단(4세)과 바실(3세)은 어린 터라 로켓 공습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내와 큰형들의 친절한 보살핌으로 어린 아이들을 위로하고 지켜주어 염려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수많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 피란민들에게 영락교회에서 보낸 구호품 전달

브엘세바 현지 교회와 러시아계 유대인 가정교회 두 곳, 그리고 스페인계 유대인 가정교회 한 곳의 리더 십과 캠퍼스 대학원생들과 매일 소통하며,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매주 화요일 저녁에 브엘세바 사역센터에서 현지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현지 성도님들과 전쟁에 참여 중인 군인 가족들, 이스라엘의 유대인, 팔레스타인과 베두인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에서 신음 중인 귀한 생명과 이들을 돕고 있는 인권단체 사역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구호 활동에 힘이 실릴 때마다 이곳 브엘세바에 끝까지 남게 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뜻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계속해서 방공호에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안전지역이나 한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쟁

이 시작된 후 빗발치는 현지 주민들의 전화와 도움 요청,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와 지원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곳 브엘세바를 떠날 생각을 못 하고 지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쟁이 시작되고 유대인 청년과 장년, 이스라엘의 젊은 핵심 자원 36만 명이 즉각적으로 예비군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국가가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남부 지역 거점인 소로카 종합병원이 갑자기 수백 명에서 천명 넘는 사상자들로 북적였고, 그로 인해 병원 측으로부터 급하게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유대인 현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큰아이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오가며 사상자후송을 돕고, 의료구호물자를 정비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과 가족을 예비군으로 전쟁에 보내야 했고, 급히 병원에서 구호 활동을 도우러 나온 현지 교인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로켓 공습이 있으면 방공호로 함께 대피하면서, 현지 교인들과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의 한국행 귀국 전용기 제의 모두 포기

전쟁 발발 며칠 후,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행 전용기 신청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섯 식구가 함께 예배한 후에 가족회의를 열고 난 후, 귀국편 전용기를 포기하고 브엘세바에 남기로 했습니다. 비록 전쟁 중이고 극심한 공포 속에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현지 성도들과 피란민들을 돌보며 캠퍼스 대학생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 국적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두 번 더 있었고, 그때마다 대사관에서 긴급으로 전용기 이용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곳이 안전한 주 날개 밑” 큰아들 말 든든

전쟁 확산 가능성과 상황의 심각함으로 인해 귀국 비행편 제안을 재차 받았을 당시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특히 셋째와 넷째 어린 자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눈물 맺힌 고민을 마주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노아야, 로켓 공습이 계속되고 폭발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맞을까? 어린 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한국으로 떠날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있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잖아요. 아빠, 지금 공항 쪽이 더 위험해요. 어쩌면 공항 가다가 로켓에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이곳 종합병원 옆이 주님 날개 아래 있는 안전한 피난처 같아요. 우리 현지 교인들도 도와야 하고 여기 남아요. 저랑 동생들은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 노아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와 네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

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재차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순종하고, 이스라엘 남부지역 브엘세바에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에 내린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세 차례의 귀국 전용기 탑승 기회를 모두 내려놓으니, 더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평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마음을 더 굳게 간직하고, 현지 성도들과 피란민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가자) 양쪽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고 구호하며 심방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선교하라면 말씀

10년 전인 2014년 봄, ‘현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받아 처음 이스라엘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약시대 이후의 관점으로 다양한 민족과 백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돌아온 다양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아랍인,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남부지역 베두인(무슬림), 북쪽 소수민족 드루즈인 등 ‘다양한 민족이 한 이스라엘 땅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 종교, 역사, 땅, 민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어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극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적과 역사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예수님의 사랑과



야드하쉬모나 150인 피란민 대상 점심 구호 사역

평화가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있는 브엘세바는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현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신음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에 있는 다국적 인도주의 기관(유엔, 유니세프, 적십자)의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아랍인을 사랑하게 되고, 아랍인도 유대인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공존하는 다양한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선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로 믿습니다. 처음 이스

라엘에 온 2014년부터 6~7년 동안은 자비량 선교를 감당하며 지냈고, 2020년에는 이스라엘 내무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유대인 사회에서 개신교 목사로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20년 11월에 영락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 다음 주간에 넷째 아들 바실이가 태어나서, 벌써 만 3살이 되어 지금 6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이 이스라엘 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로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에 처한 지금,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락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한경직 목사님이 바라셨던 선교이고,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신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따라 전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피란민과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락 성도의 기도와 헌신 구호에 큰힘

이스라엘 남부지역, 특히 브엘세바 지역은 늘 전쟁 영향을 받아와서 로켓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 성도들을 돌보고 구호를 제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힘에 의지하여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집과 터전을 잃은 현지 성도들과 피란 중인 현지인들을 계속 섬기고자 합니다. 전쟁 이전부터 네게브 광야의 베두인(무슬림) 144 가정을 위해 매일 구호,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의 베두인 남성들과 성인들은 이스라엘 남쪽 영토에 거주하지만 아랍(무슬림권)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취급받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전무한 까닭에 저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궁핍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구호품을 들고 지속해서 섬길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지역인 예루살렘(야드 하쉬모나)에 대피한 남부지역 150명 피란민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구호 사역을 현지 공동체들과 순번을 정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인접한 도시 아쉬켈론의 현지 교회에서도 피란을 가지 못한 현지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남아, 같은 처지의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쉬켈론 현지 교회에 필요한 부식과 음식을 지원하는 일도 저희 브엘세바 사역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과 필요한 작업들을 글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과 가자지구의 귀한 생명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다국적 국제구호 기관 및 현지의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를 통해 아랍인



팔레스타인 아랍인 구호심방 상담

과 가자지구의 귀한 생명 구호하기 나서길 원하며 하나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열심히 선교할 것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 가정은 이 전쟁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브엘세바에 끝까지 남아 이 지역의 백성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 구호 사역과 섬김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결국 현지 성도와 피란민들에게 전화위복의 시간이 찾아오길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에 진행되고 있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큰 힘을 얻으며 진행되는 다양한 구호 사역은 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 아랍인, 베두인, 현지 교인 및 모든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이 땅과 백성 위에 임하옵소서!! **만남**

김정혁/유세영 선교사 _ 이스라엘

만추의 정오 영락 트락 직장인들 복음에 ‘물들다’

- <직장인 버스킹 음악회> 큰 반향



가을의 끝자락 어느 날... 삼삼오오 짝지어 나오는 직장인들. 점심 식사를 위해 영락교회 정문 앞을 지나가는 순간, 손에 쥐어주는 초대장 한 장 <직장인 초청 음악회>. 그 순간, 저만치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자석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자연스레 전도 현장이 된 영락교회 마당의 <직장인 버스킹 음악회>는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획자, 연주자, 관람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올해 금요일직장인 예배 목사로 섬기며, 주중에는 저의 눈에 온통 교회 주변의 직장인들만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직장인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와 교회 주변 식당과 카페를 가득 채우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영락교회 광장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정오 음악회>와 같은 문화적 접근이었어요. 오가다 잠시 멈춰서 들을 수 있는 '버스킹'과 같은 형태였죠.

직장인 버스킹 음악회로 정착 기대!

총 2회(10월 26일, 11월 2일 목요일)에 걸쳐 음악회를

진행했는데, 특별한 홍보 없이도 영락의 뜰 안에서 흐르는 찬양 소리에 반응한 직장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광장으로 들어와 편안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더 큰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락교회 동서남북 직장인을 주중교회로!

한경직 목사님은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외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주중교회 직장인 예배팀은 명동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영락교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직장인을 주중교회로!!" 지속적인 정기적인 음악회로 계속 이어져서, 영락교회 광장이 직장인들의 최고의 쉼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향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

원래는 만남 카페 음악회로 준비했는데, 교회 항존직 선거를 앞둔 시기라서 급히 야외 음악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씨와 음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 전도부와 직장인 예배팀은 2주간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복음의 향연을 안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관람자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데,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음악회가 고풍스러운 교회 광장에서 열린 것은 정말 멋졌어요. 게다가 샌드위치와 커피까지. 부담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 H사이 팀장

아쉬움? 전혀 없어요. 충분히 넘치게 좋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이번 행사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 공연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 S사 사원

야외무대에서 정오의 음악회로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을 배경으로 펼쳐진 30~40분의 공연은 짧게 느껴졌어요. 이런 버스킹 문화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어요. - K문화사 P대표

깜짝 놀랐어요. 멋진 트럼펫 연주로 깜짝 생일 파티를 받다니! 완전히 예상치 못한 야외 생일 축하였죠. ♪ 이런 일이 있네요. 이번 가을은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특별한 생일 파티로 기억될거예요. - 봉사자

연주자

극동방송 '내 영혼의 클래식' 진행자로 유명한 유정현 씨의 드림콘서트팀 그리고 트롬보니스트 이한진, 콘스탄틴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다양한 무대 경험이 있는 그들은 이번 영락교회 버스킹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 벽을 배경으로 한 베다니 광장은 이국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대였어요. 해외 원정 공연 느낌이 났죠. 짧은 시간이지만 직장인들에게 힘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한 소중한 공연이었어요. 음향이 가장 중요한 야외무대에 적합한 환경으로 참신했고, 문화 선교부의 섬김은 아주 수준 높았습니다.

- 트롬보니스트 이한진

아내가 어린 시절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이야기만 듣다가 방문해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베다니 광장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날씨까지 더해져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빛나는 표정과 반응도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공연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 피아니스트 김한길

취재 인미기자

취업 면접 ‘나만의 스토리’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섬길 자리를 찾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함과 동시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선택

직장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간의 성장 과정 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한 일이나 내가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돌이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로 나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 유형은 나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나의 행동을 가둬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접근 방식이 달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의 애벌레들처럼 세상의 흐름에 막연히 휩쓸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빠른 변화에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일을 주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 달란트 함께 키울 수 있는 곳인지 봐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면, 이제 그 달란트들을 사용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을 살펴봅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진 요즘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개인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직장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일할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곳인지를 살



김용진 집사
안양·수원교구
삼성인력개발원 리더십팀

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은 물론 해당 기업에 관한 영상이나 뉴스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들의 의견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보를 더해가며 내가 가진 장점과 맞춰보면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이는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이 직장 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물질적 보상은 영원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이의 상대적으로 모방하기 쉬운 제안이기 때문에 그 크기만으로 일을 선택하고, 정하는 것은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일을 선택할 때에는 물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함께 일하는 환경, 그리고 직장이 내 개인적인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장점과 성장의지 강하게 어필해야

면접 준비 과정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자신의 개성과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면접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터뷰(Interview)’라는 의미처럼 나 또한 해당 회사 분위기를 느끼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원자에게 질

문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필하고,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답을 듣더라도 입사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배워가겠다는 학습과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후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 회사와의 조화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부족했다면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했던 결과를 얻은 경우에도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경우에 있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르는데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인도 믿고 결과 앞에 겸손히 간구

제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미리 회사 건물을 찾아 조용히 <땅 밟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될 동료들을 상상하며,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인지, 또 그들이 내가 섬기게 될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면접 후에도 직장 생활에서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찾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 행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도전! 성경 골든벨’ 퀴즈 풀며 신앙 더 깊어져

모리아 주최 사도행전·누가복음 주제

2023년 1월, 청년부 「모리아」 부서는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청년들의 성장과 성경 공부를 위해 <도전! 성경 골든벨>을 계획했습니다. 3월 26일,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 「모리아」는 첫 번째 <성경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와 구성원들의 성장과 확장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도현진 성도
청년부 모리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모리아」의 리더들은 합심하여 부원들에게 사도행전을 읽도록 권장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하여, 멘토 권사님이 만든 관련 문제들을 풀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골든벨은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공부하며, 퀴즈를 풀고 서로의 고민과 신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성경 골든벨> 행사는 「주는나무」 부서와 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모리아」 부서는 친교를 중요시하여, 이번에는 다른 부서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주제로 두 번째 <성경 골든벨>을 기획했습니다. 이 행사는 10월 마지막 주에 열렸고, 9, 10

월 동안 각 부서의 리더단, 멘토님들, 전도사님들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부에는 5개 부서가 있는데, 이중 2개 부서가 이 행사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참여한 모든 청년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전! 성경 골든벨> 행사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 공부에 큰 도움을 주시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설명해 주시고, 이 행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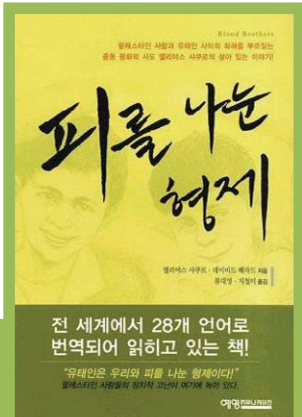
진행해주신 전도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기획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엔 '변화와 새로운 시작' 준비 중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였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 동안 청년부와 「모리아」에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청년부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주실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더 많은 청년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피를 나누는 형제



엘리아스 샤쿠르·데이비드 해자드 지음
류대영·지철미 옮김
예영커뮤니케이션 펴냄 1984/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죽음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기에 많은 성도님이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지구 반대편 중동지역의 분쟁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마도 그 땅이 성경의 배경인 지역인 데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인물들의 후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 그리고 분쟁 과정에서 '성경의 요인들'이 직간접으로 언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 작가 데이비스 해자드가 쓴 것으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기독교 성직자 엘리아스 샤쿠르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성도님들께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의 주인공 엘리아스 샤쿠르의 놀라운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팔레스타인-아랍-기독교-이스라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1939년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 연도에 이스라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고향인 비람의 지역분쟁으로 인해 나사렛으로 옮겨 학업을 이어갔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1965년부터 하이파, 나사렛, 갈릴리 전역을 담당하는 주교로 섬겼습니다. 엘리아스 샤쿠르는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3번이나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받았습니다.

이 책은 전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경제적 전망 등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분쟁과 고통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온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글이 『만남』에 실릴 즈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만남**



박성은 목사
강동·송파교구
새가족부

‘이 시대의 리더상’을 찾아서…

2023 북적북적 공모전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상(像)』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세부 주제로 나뉘었습니다.

- ①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 ②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삶에 나타난 리더십

리더십 주제 9월 한달간 글·웹툰 등 354편 응모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응모를 받았으며, 청·장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성도들과 교회 산하 7개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354편의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응모작품의 심사는 홍보출판부, IT미디어부, 영락미술가협회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심사위원 9인을 선정하여 〈일반 부문〉과 〈한경직따라살기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응모작품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부문은 응모작품들이 공모전의 목적과 주제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작품에 반영했는지, 글의 구성력과 문장력, 창의성과 참신성을 고려했습니다. 독서감상문 응모작은 문학적 소양과 글의 표현력을, 그리고 미술과 영상작품들은 예술성과 스토리 완성도를 주요 평가요소로 삼았습니다. 한경직따라살기 부문에서는 응모자의 논지 표현력, 논리적 전개, 자료수집 및 독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응모작들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로서 학교나 직장에서 중심을 지키며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상 3편 포함 총 81편 수상작 선정

심사를 거쳐 대상 3편, 최우수상 19편, 우수상 30편, 장려상 29편 등 총 8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찬양예배 시간에 개최되었으며, 기독교 학교들은 각 학교에서 별도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작은 11월 12일(주일)부터 25일(토요일)까지 베다니광장에 전시되었습니다.

목적목적 수상자

1

한경직 따라살기 부문

	성명 [소속]	제목
최우수상	허준영 [대학부]	'봉사와 포용의 복극성 한경직, 그리고 나'
우수상	김수혁 [대학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장려상	신유림 [영락고등부 2]	영락키즈

2

일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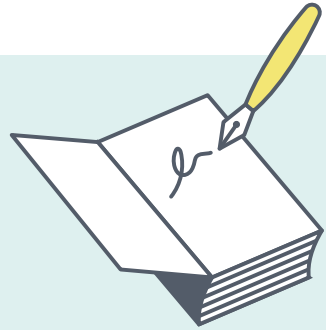
◦ 대상 수상자

성명 [응모부문]	제목
보성여고 1학년 한아엘 [독서감상문]	리더를 꿈꾸는 10대에게
영락고 1학년 성주연 [UCC]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보성여중 1학년 이다임 [독서감상문]	다윗대통령의 귀환

◦ 본 교회 수상자 (산하 7개 학교는 별도 시상)

	성명 [응모부문]	제목
최우수상	청년부 유바른 [독서감상문]	미래형 리더가 온다
	장년부 조명철 [장년부, 독서감상문]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침묵』의 침묵
	중등부 방송반 Y-NET [UCC]	다윗 대통령의 귀환
우수상	장년부 엄혜옥 [회화]	나 다윗! 70세 이제 하나님나라로 귀환하려한다
	장년부 안세진 [독서감상문]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리더 모습
	장년부 장문규 [UCC]	The Leader
	고등부 2학년 방서현 [독서감상문]	좋은 리더에 대한 고민
	고등부 2학년 신한빈 [독서감상문]	내 인생의 주인공, 나의 길을 찾아가다
장려상	중등부 3학년 전차윤 [웹툰]	우리는
	청년부 김승태 [독서감상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삶의 나침반
	고등부 2학년 이현초 [독서감상문]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중등부 1학년 박다혜 [메타버스]	
	중등부 1학년 박다현 [독서감상문]	

복적복적 심사를 마치고



수준 높은 작품 은혜와 도전 던져

샬롬. 해마다 이 시기에는 독서의 열매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복적복적 독서행사 공모전》의 응모작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는 황송한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응모작을 읽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즘의 거친 세태 속에 주님을 찾아 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좋은 책들을 독서행사 대상으로 선정해서일까요. 고등학생들의 진솔한 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글은 당선작을 가리기 송구할 정도로 모두 일정 수준에 이른 훌륭한 글들이었습니다.

먼저, 영락학원 산하 중·고등학교 및 기독교학교연합회 소속 학생들의 독서감상문, 회화, 웹툰, UCC,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응모작들은 ‘리더십’이 주제인 것이 대부분이라 요즘 10대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대학 진학 목표에 치여서일까요? 학생들의 글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해 막막함이 스며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불확실성의 어둠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자”라며 “리더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임을 깨닫는 성숙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일반부)의 응모작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진지하고 지성적인 간증문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장점을 찾아 부족함을 덮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는 화목제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글이나, 독서감상문의 지정 도서조차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비판하며 리더의 상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쓴 글은 큰 도전을 던집니다.

〈한경직 따라살기〉 부문은 우리가 과연 한경직 목사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목사 설교문과 한 목사에 대한 논문을 읽고 쓴 이 부문 글들은 고등학생과 성인 성도 모두 “신앙인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까?” 하는 쉽고도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또는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중심을 지키며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설교문을 통해 찾은 응모작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도전하게 했습니다. 좋은 글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안남**

심사위원 박선이 외 8명

리더의 큰 걸음, 작은 일 실천부터

- <리더를 꿈꾸는 10대에게>를 읽고

한아엘 _ 보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나는 스스로를 존중 못하는 메뚜기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의 목회지를 따라 해방촌에 살면서 처음에는 큰 실망과 당혹감이 있었다. 이전에 살던 지역보다 좁은 골목길, 가파른 언덕, 불편한 환경, 낯선 사람들, 담임목사님의 딸이라는 주변의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위축되고 힘들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난감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상황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1학년 2학기가 시작된 즈음, 『리더를 꿈꾸는 10대에게』를 만났다. 이전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을 향한 막연한 자책감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 얼마 전, 교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33)라고 말했다. 스스로 자신들을 보니,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한다. 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바라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리더는 내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 되는 것

한 번 읽었을 때,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두 번을 읽었을 때, 이 책은 리더십 계발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임을 알게 되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리더를 꿈꾸는 10대에게』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 사실, 이러한 선택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저자는 리더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영웅이 아님을 강조한다. 리더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부터 리드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 저자는 큰일이 아닌,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고 한다. 그 작은 일을 리더십 노트에 기록하고, 하나씩 성취해보자고 격려한다. 나의 리더십 노트에는 ‘십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 한 명의 친구에게라도 먼저 인사 전하기, 학교 가는 길의 골목에 있는 쓰레기 줍기, 잠자기 전에 감사기도하기’ 등을 적었다. 실패한 날도 있었지만,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 그리고 조금씩 나 자신이 ‘메뚜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다.

‘왜’에 매여 있던 삶 ‘이제 어떻게’로 바뀌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 나의 삶은 ‘왜’에 관한 것에 매여 있었다. 내가 왜 해방촌에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목회자의 딸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였다. 리더를 꿈꾸는 10대는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을 지속해서 말하고 있다. 리더 본능, 영향력, 변화 수용, 일의 우선 순위, 위기의 순간 대처, 자기 훈련, 긍정적 태도, 크고 높은 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이 모든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 그 자체였다. 저자는 이 땅에 오셔서 ‘정직, 고결, 성실’하게 살아가신 주님의 삶을 이 책에 그려 넣어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로 인해서 나는 이 책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감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영웅담을 읽었다면, 나와는 상관



없는 삶이라고 외면했을 텐데, 이 책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생활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살라고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해 보자고 사랑의 언어로 말해준다.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함께 가자고, 따스한 마음과 진정으로 우리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의 모습을 깊게 생각하면서, 8장 (p183)에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자”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다. 나의 태도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만들어진다. 좋은 리더는 결국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은 좋은 태도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 “새로운 자신을 향해 가는 다섯 단계” (p194)는 나를 이해하고 태도를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 감정을 깨닫는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내 안의 좋지 않은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중간고

사를 마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보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 '문제 행동을 깨닫는다' 무슨 일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한 열 명의 정탐꾼(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혹시 실패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도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세 번째, '문제사고를 깨닫는다' 내가 꿈을 꾸는 일을 방해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무엇일까, 수학에 대한 열려와 공포,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는 성적에 대한 실망,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짜증, 리더가 되는 일을 가로막는 문제사고를 찾아내고 버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네 번째, '올바른 사고를 깨닫는다' 문제 있는 사고를 올바른 사고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기회를 찾고 방법을 발견해서 움직여야 한다. 다섯 번째, '말한 것을 실행한다' 말한 것이 생각과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순간, 나는 이미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긍정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실행할 때,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닮은 리더가 답...생활속 실천 시작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를 만들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가 나를 만들어간다는 단순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어렵פות이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은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언젠가 아버지가 말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셨다. 좋은 리더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가 기본이다. 이 책은 나를 고민하게 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며칠 전에도 사소한 일로 엄마와 다투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좋지 않은 언어가 나와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나는 좋은 딸이고 좋은 학생이며 좋은 사람인가. 이 책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책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사과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책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책을 읽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 가족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보이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희미하지만 보이는 듯하다. 할 수 없는 일에 실망하여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태도와 행동을 선하게 만들어보자. 비록 지금 천천히 감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리더십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한다. **만남**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준비된 리더였다

- <다윗대통령의 귀환>을 읽고

이다임 _ 보성여자중학교 1학년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다윗을 잘 모른다.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창세기 앞부분만을 재밌게 여러 번 본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늘 천지창조 6일쯤 되면 말씀을 덮었다. 어디서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윗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미소년의 작은 몸으로 골리앗을 돌로 때려잡는 모습이다. 때려잡은 것은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대체 다윗이 뭘 어떻게 했나 이제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다윗대통령의 귀환』이라는 책을 골랐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팔매, 갈고뿔은 스킬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가 등보잡이었는데 어떻게 챔피언급 골리앗을 이겼는지부터 설명한다. 다윗이 마치 내가 알고 지내는 친구 중 한 명같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다윗이 던진 돌은 원운동의 과학 원리가 담겨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 그것을 단거리 미사일처럼 이용한 것이다. 골리앗과 맞장떠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전략이 필요했다. 이것이 다윗만의 무릿매 전략이었던 것인데 비대칭 전술이라고 표현했다. 곰이나 사자와 같이 강한 상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진 자신만의 스킬이었고 오랜 시간 훈련돼 있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이 자신감을 더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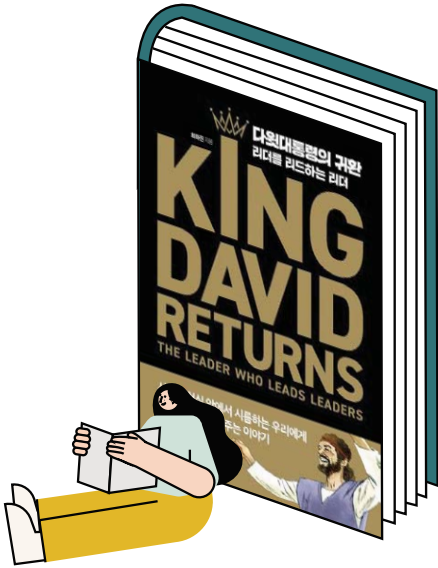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내 생각 속 이미지처럼 단순히 돌을 던져 믿음으로 맞힌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년 때부터 갈고뿔아 20세에 이겼으니 미소년의 모습으로 쉽게 이긴 것도 아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무릿매 말고 다른 스펙이 더 있다고 했다.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시도 쓰고 기타도(수금) 좀 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자기 매력 어필인가 싶지만, 이것들이 스펙으로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주었다.

듣고 보니 저런 것들도 스펙이 될 수 있구나 싶어 나에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봤다. 나는 친구를 웃길 수 있고, 책을 읽고 쓰기를 좋아하고, 영상 만들기를 조금 할 줄 안다. 그리고 잘하고 싶다. 이것들이 모두 1만 시간 이상 훈련이 되어 나의 차별화된 스펙으로써 비대칭 전술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상상만으로도 이가 드러난 채 웃고 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비폭력, 설득에 감동

하지만 다윗에게 모든 실력이 준비된 순간부터 긴 시련이 시작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 후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된다. 10년



정도의 시간을 죽을 위험 속에 살면서 자신을 따라온 동지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책임진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 실패하기도 하며 그렇게 연단이 되어갔다.

인상적인 것은 비폭력 시위였다. 그것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설득했다. 여기서 다윗의 스펙 중 말을 잘하는 것, 즉 소통할 줄 알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쓰인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신뢰했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따라주었다고 생각한다. 다윗이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었는지, 눈물로 함께 공감하고 자신의 상처와 함께 그들이 치유되었는지 알 것 같다.

가족들도 처한 배고프고 두렵고 지친 힘든 상황을 한 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 그

리고 리더가 보여주는 비전을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다. 다윗이 컴컴한 아둘람 굴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하는 그들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끌어 낸 결과라 생각한다.

그래서 비폭력 시위를 따르는 그들을 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상적인 말을 했다. “나는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다” 어느덧 다윗이 어른으로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쉬운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비폭력 시위를 하지 않고 사울을 바로 죽였다면 더 많은 사울의 군대로부터 공격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을 보이며 수천의 사람들 앞에 무고함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것에 감탄했다.

주 찬양하는 시가 있는 한 다윗에겐 실패 없어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가장 놀랐던 것은 다윗의 실패에 있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나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대가를 치르고 책임지는 고통 속에서 산 것이다. 저 정도면 그냥 망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비참해 보였다. 하지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스펙 중 하나였던 시인으로써 여전히 찬양했다. 시는 이때를 위해 훈련되었나 싶기도 했다. 변함없이 시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했기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 다윗도 소년으로 시작해 어른으로 그리고 낯선 노인의 모습으로 변화해갔다. 말년에 다윗의 몸은 기력도 없이 쇠하여 초라해졌다. 너무 슬펐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 속에서 영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인생으로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다.

다윗은 단지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니었고 실존했던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 그리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리더였다.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도 보였고 그 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옳은 것을 쫓았으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행동이 동일했다. 큰 전쟁 중에서도 한 명의 생명을 무시하지 않고 구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큰 승리를 하기도 했다. 다윗이 말한 인테그리티는 다윗에게 남아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다윗은 위대한 리더로 불린다.

다윗을 따라 가볍게 읽기 시작했지만,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성취감에 취해보기도 했다.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도 받아들이기 싫기도 하고 연민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뒤섞여 어느 시점부터는 다윗의 인생이 무겁게 느껴져 힘들기도 했다. 아직 내가 중1이라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살면서 다윗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내 안에서 조금은 변한 것이 생긴 느낌이다. 그리고 책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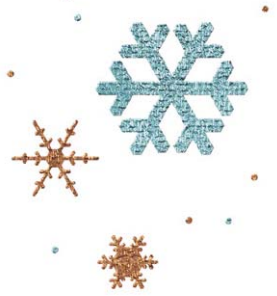
에서 한 말이지만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이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서 성공했다고 기뻐해서 뭔가 다행이었다. 다윗은 정말 그러고 있을 것 같다.

다윗처럼...스펙 갖추고 때를 기다리자

나는 사실 리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왔고, 유치원 시절 원지도 모르고 한 번쯤 꾸미본 야망 정도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막연하게 그냥 최고의 조력자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리더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최고의 조력자가 되려면 리더의 마음으로 리더가 되어야 최고의 조력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윗도 리더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장점을 훈련하여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고 순종하여 리더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의 스펙들을 더 찾아서 기르며 훈련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 기대된다. 막연하지만 앞날에 대해 꿈을 꾸 본다. 그리고 성경에 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이것은 좋은 징조임이 틀림없다. 설렌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기대하는 기분이다. **만남**

갈릴리찬양대, 23일 성탄절 음악회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첫 도전 <바흐>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영락교회는 헨델의 메시아와 다양한 성탄 캐럴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갈릴리찬양대가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주제로 성탄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많이 연주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곡의 연주는 어렵기로 유명한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합창단이 아니면 연주가 쉽지 않은 곡으로 여겨져, 교회에서는 성탄 음악회용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찬양대에서는 이 아름다운 곡을 지난 1년간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모든 성도와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음악을 오로지 하나님 찬양에 바친 바흐

이 곡을 작곡한 바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작곡가 중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오로지 하나님 찬양에 집중했던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

손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 그가 남긴 수많은 음악은 그 주제가 하나님 찬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음악 재능을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인식하여, 작곡한 작품에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약자인 SDG를 써넣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사 그린 심오한 작품

바흐는 오라토리오라는 이름의 작품을 3개 작곡했는데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부활절 오라토리오’, ‘승천절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작품들은 오라토리오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대부분 칸타타 형식으로 작곡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역시 6부(6개의 칸타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크리스마스 첫째 날): 요셉과 마리아의 여행 시작, 아기 예수 탄생

2부(크리스마스 둘째 날):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 탄생을 알게 된 목자들

3부(크리스마스 셋째 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

4부(그리스도 할례 축일): 태어난지 8일 후에 할례를 받고 예수라 이름함

5부(새해 첫째 주일): 예수님 오심에 관한 예언으로 인해 오신 유대 왕을 찾는 헤롯 왕

6부(주현절 축일): 동방박사의 경배와 그의 나심을 축하함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조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부에는 누추하고 낮은 곳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4부에서 예수님의 탄생기적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감사를 각각 #, b 조성으로 사용했고,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1, 3, 5, 6 부는 #을 두 개 이상의 조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전체 연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품으로, 갈릴리 찬양대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음악회에서 전체 오라토리오 중 주요 부분들을 발췌하여 약 1시간 10분간 연주할 예정입니다. 갈릴리 찬양대가 준비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연주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바흐의 음악을 경험하고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조성환 장로
성동·광진교구
갈릴리찬양대 지휘

“바울과 함께 감사의 삶으로!”

-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함에 한해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월 19일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졌다. 이날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총동원 전도주일’로도 드려져 김운성 위임목사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마가복음 2:13~22)”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영원한 천국의 길로 모두 함께 동행하길” 기원하며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지난 11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매일 아침 본당에서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교우가 본당을 찾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미리 선정된 교구가 요일별로 찬양순서를 맡아 특색 있는 찬양을 정성껏 드렸고, 대표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참석한 교우들과 영적 교감의 시간도 나눴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경 속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마음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자”는 내용으로 매일 아침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기도회 기간에 김운성 위임목사는 ‘바울과 함께 감사의 삶으로!’ 라는 기도회 주제 아래 11/13(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1/14(화) ‘지난 추억 인해 감사’, 11/15(수) ‘응답하신 것 감사’, 11/16(목) ‘장미꽃 가시 감사’, 11/17(금) ‘따스한 가정 감사’, 11/18(토) ‘내일의 희망을 감사’ 등 평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소재목으로 정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소개했다.

취재 박진현기자 사진 원종석기자

총동원 전도주일 열어...“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과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지난 11월 19일 주일은 2023년 <총동원 전도주일>로 드러졌다. 이를 위해 전도부(부장 임우섭 장로)에서는 최재선 담당 목사가 인도하여 10월 15일, 22일, 29일(주일) <성령의 바람, 관계전도세미나와 기도회>를 갖고 사랑하는 이나 주변의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했다. 또한 11월 3일, 10일, 17일(금)에 <전도의 바람, 특별 금요 기도회>를 열었다. 특별금요기도회는 3일 남상혁 목사(장신대 전도학), 10일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17일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기도라는 무기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회를 가졌다. 19일 전도주일 당일 전도 대상자를 예배로 초대하여 환영 선물을 전하고 새가족 접수를 도우며 환영했다.

제공 박석병 집사(전도부 서기)

중등부, YPASS 친구초청예배...39명 새친구들 참여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는 11월 19일(주일)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행사로 <YPASS 친구초청예배>를 열었다. 중등부 학생들은 일찍부터 140여 명의 친구를 초청하기로 작정했고, 매 주일 초청할 영혼들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11월 14일(화)에는 보성여자중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축복하며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도하고 기도하며 초청한 결과 39명의 새친구

가 예배에 참여했다. 초청예배 당일 중등부 교사들은 손수 만든 음식(떡볶이, 어묵, 닭강정, 음료, 과일)을 준비했고, 50주년기념관 4층 로비에 새 친구들을 환영하는 포토존과 플레이존을 설치했다. 새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획한 중등부 예배는 중등부 특활반들의 특별순서(피아노 3중주, 랩, 찬양, 무언극)를 통해 마음을 두드렸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종실 목사는 '오우에 씨몬!(요한복음 3:16)'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로 나아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하는 시간이 된 이날, 아직 다음세대에 소망이 있음을 느끼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다.

제공 중등부



“아무 염려 말라”... 영락교회 수능기도회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락교회 수능당일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벨벳기도실이 아닌 드림홀에서 진행한 이번 수능기도



회는 오롯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아래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수험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수능기도회는 총 4교시로 나누어 치러지는 시험 시간에 맞추어 교육부 교역자가 찬양 및 말씀 선포와 기도회를 진행했다. 1교시는 이종실 목사(중등부)가 ‘에벤 에셀’ 제목으로, 2교시는 방덕중 목사(교육 총괄 및 대학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목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3교시는 신주현 목사(아동부)가 ‘새로운 은혜’ 제목으로, 마지막 4교시는 이영호 목사(고등부)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제목으로 기도회를 진행했다.

제공 정창대 전도사(고등부)

아신대 주최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회>... 영락 연합찬양팀 대상

아신대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최·주관으로 지난 11월 2일(목)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솔로, 중창, 그룹(CCM, 찬송가, 복음성가)이 참여한 가운데 9월에 열린 1차 예선을 거쳐 최종 선택된 12팀이 본선에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본선에 참가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소속 연합중창팀 9명(조현아, 박소은, 방서현, 이제훈, 박지홍, 탁하나, 정지유, 홍지은, 이나현 학생)은 <왕께 찬양합니다(Camp Kirkland)> 곡을 연주해 대상(상금 100만 원)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찬양팀 리더 조현아 학생(고등부)은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찬양대 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



쁨인 친구들 9명이 많은 사람과 찬양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마음과 소리를 모아 참가하게 됐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며 대상 소감을 전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2023 중보기도학교> 열려

2023 중보기도학교가 “깨어 있으라” 주제로 11월 15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중보기도 대원과 교인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드림홀에서 뜨거운 열기로 열렸다. 강사인 권혁일 목사는 “1강 우리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2강 우리는 어떻게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을까?”를 전했다.

제1강에서 권 목사는 ‘세상(헛된 욕망, 쾌락, 분주함 등)으로부터의 물러남’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규칙’ ‘함께 서로를 깨울 수 있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에 도움이 되는 성찰의 기도(Examen)를 소개했다.

제2강에서는 육체적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보다는 깨어 있을 때를 기도 시간으로 배정하고, 그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야 한다고 권면했다. <중보기도학교>는 영락기도대 주관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하반기에 열리며 교육 후 「주일 기도대」와 「평일 기도대」로 봉사하게 된다.

제공 영락기도대

게스트	조훈 (개그맨) 아닌빛라이트 (가수) 김성경 전도사 (원디사이틀)	2023. 12. 23.
총 상금	200만원	
2023. 12. 23.	YPL 풋살대회 골 때리는 고딩들 장소 대광고등학교 시간 10시 - 16시	2023. 12. 23.
2023. 12. 23.	장기자랑 경연대회 영락 갓 탤런트 장소 영락교회 드림홀 시간 17시 30분 - 19시	2023. 12. 23.
2023. 12. 23.	기프트-콘 성탄의 기쁨! 선물의 기쁨! 장소 영락교회 드림홀 시간 19시 - 21시	2023. 12. 23.

참가신청



문의



금요직장인예배 창립 54주년 감사예배...“영적 기도 끊이지 않길”

직장인 예배가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3일 직장인예배 담당 황재영 목사의 인도, 김운성 위임목사 설교로 특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세기 29장 14~20절을 본문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후 특별 순서로 54주년이 되기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준 많은 분에게 감사 축하하며 케이크 커팅과 떡 선물을 나눴다.

직장인예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69년 9월 첫주에 시작, 그동안 세차례 IMF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팬데믹을 겪으며 한때 400명이 넘던 예배 출석자는 1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1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직장인 예배는 전도부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정오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며 간단한 식사도 제공하고 있다.

취재 인미기자

<가을신앙수련회>목요양육훈련 집중반 4기 설악수양관 다녀와

제자양육훈련부(부장 김병욱 장로) 목요양육훈련 집중반 4기는 지난 10월 30~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설악수양관에서 <2023 가을신앙수련회>를 진행했다. 참여한 이번 가을신앙수련회는 1년간의 양육 훈련 마무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던 기존의 <국내성지순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설악수양관에서 가졌다. 첫날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둘러 북돋움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로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수련회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명 한 명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다. 목요양육집중반 훈련은 1년간(3월부터 11월) 18개 교구 목사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10시 반 구역별 강의실에 모여 <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는 집중 교육 과정이다.

취재 인미기자

창립 78주년 기념음악회...구노의 '장엄미사' 베다니찬양대에서 올려

창립 78주년 기념음악회를 베다니찬양대(대장 박경도 안수집사)가 주관하여 11월 26일 주일 찬양예배 시 베다니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로 교회 창립 기념을 축하했다. 베다니찬양대는 대원 100여 명과 백승헌 안수집사의 지휘와 반주 정혜연(오르간), 임수현(피아노), 윈드 앙상블과 협연으로 '주님(Michael M. Smith)'



의 합창곡을 시작으로 10곡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수요 2부 기도회 찬양을 맡은 베다니찬양대는 구노의 '장엄미사'를 오랜 시간 준비하여 이번 음악회에 찬양하며 음악적 감동을 주었다. 오케스트라 편곡은 베들레헴찬양대 전 지휘자이셨던 고 박영근 장로의 편곡으로 윈드 악기(목간, 금관)와 팀파니, 오르간,

피아노 반주로 구성되었고 특히 Credo(사도신경), Sanctus(거룩하시다), Benedictus(복있도다) 곡은 웅장함 속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특별히 축하영상으로 준비한 유년2부찬양대의 'Happy Birthday 영락교회' 찬양은 성도들에게 어린이들의 귀여움과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기쁨을 선사했다.

제공 베다니찬양대 사진 원종석 기자

권사회찬양대, 성가합창제 첫 참가

지난 11월 14일(화) 한국교회 여성지휘자협회 주최로 <제33회 음악선교를 위한 성가합창제>가 우리 교회 베다니홀에서 개최되었다. 음악 선교를 위한 음악회에는 총 8팀이 참여한 가운데 권사회찬양대(대장 김영하 권사) 70여 명이 올해 처음 참가했다. 이날 합창은 지휘자 권사가 작곡한 「주님을 만날 때라」와 「전능하신 하나님」(백승남 곡)을 찬양했다. 2곡 모두 암기한 신앙고백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연습하는 권사회찬양대는 권사회 월례



회, 신년기도회 등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찬양을 통해 권사회 정체성을 일깨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제공 김영하 권사(권사회찬양대 대장)

은퇴장로회, 구순·팔순 감사예식 열어

은퇴장로회(회장 정상봉 은퇴장로)는 11월 23일 (목) 제2식당에서 은퇴장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순·팔순 감사예식을 열었다. 1부 감사예배는 김정희 목사의 인도로 김운성 위임목사가 '이제 후를 바라보며(디모데후서 4:6~8)'의 제하의 말씀으로 "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바울 사도 같이 멀리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 찬송의 영적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로님들 되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2부 김의환 은퇴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축하연은 구순을 맞으신 변재춘, 김규홍 은퇴장로와 팔순을 맞으신 김 기, 이영민, 김성준, 이정호, 김원호, 차인태, 김영대B 은퇴장로를 모시고 축하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었다. 정상봉 은퇴장로의 축사, 아코디온 합주단의 축하송, 케이크 커



팅, 베다니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증정, 구순의 김규홍 은퇴장로의 답사, 올드보이즈의 하모니카 합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장로님들은 작년에는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쓸쓸했는데 오랜만에 많이 오셔서 기쁘다고 즐거워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박규성 목사, 일산 승리교회 위임목사 위임식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박규성 목사가 11월 19일 (주일) 일산 승리교회에서 위임목사로서 위임식을 가졌다. 위임감사예배는 집례자 신광호 목사(서울서북노



회장)가 인도하고 이철신 원로목사가 설교했다. 이어진 위임예식에서 서약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했다. 권면과 축하의 순서로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원로목사),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하 영상, 박규성 목사의 감사 인사, 승리교회 진희근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 목사는 2014년 1월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안양·수원, 성동·광진, 강남교구와 IT 미디어부, 목양부를 담당하고 2020년 11월에 사임하여 일산 승리교회로 부임했다.

성탄트리 점등… “새 희망을 비추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11월 26일 찬양예배 직후 베다니광장에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광장에는 성도들이 흔드는 야광봉의 불빛 속에 산타 모자를 쓰고 등장한 김운성 목사가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성도들이 밖에서는 모두 산타가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자”며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Cebc어린이찬양대의 율동과 찬양이 울려 퍼지며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

익은 가운데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 성도들의 환호 속에 트리는 점등되었다. 성도들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불을 밝힌 성탄트리는 24년 1월 중순경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성탄과 송구영신의 새 희망의 빛을 비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4 향존직 선거, 장로 8명 안수집사 15명 피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의 향존직 선거 4항 규정에 의거 2024 향존직 선거가 지난 11월 5일(1차 투표), 12일(2차 투표)에 50주년기념관 1층에서 실시되었다. 1차 선거는 당회 공천 순으로 정해진

후보자를 성도들에게 공보하여 투표했다. 2차 선거는 1차 투표(1.2배수) 득표순으로 투표한 결과 최종 장로 8명과 안수집사 15명이 피택되었다.

장로 피택자(8명)

조준호 김해용 강상진 문영환 김은형
최혜석 박일수 최범용

안수집사 피택자(15명)

신동엽 최판곤 임주성 안승환 정인기 고천석 김성문 김평주
차기영 김상학 김용진 정신한 박용성 한대중 이승훈

아들 안아준 아버지의 양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상징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며 그렸다는 이 작품은 상당히 큰 작품으로, 세로 262cm, 가로 205cm입니다. 이 작품은 감정적인 순간보다는 절제된 스타일을 통해 오히려 메시지의 전달을 강화했습니다. '빛의 대가'라 불리는 화가답게 렘브란트(1606~1669)는 이 작품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발광체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표현하여 매우 인상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양 손 중 왼손(그림에서 오른손)은 남성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오른손은 여성의 부드러움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엄격함과 부드러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갖고 있

는 것을 표현하며, 용서와 치유를 상징합니다. 그림 속 아들은 처음에는 식별한 죄수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평화롭게 안식하고 있는 듯한 평안한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벗겨진 샌들과 상처투성이인 왼발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탕자로 묘사하며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으며, 그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3년 12월호 통권 598호

발행 2023.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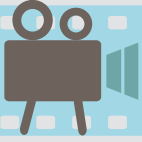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집인 김태영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김운영 류정현 안하윤 이동훈 이혜순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미 최윤미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헌 교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영락시어터 12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12/3 삼손과 데릴라 (Samson And Delilah, 1949) 12 131분

감독: 세실 B. 드밀 주연: 헤디 라마, 빅터 매추어, 조지 샌더스, 헨리 윌콕슨, 안젤라 랜즈베리

괴력의 사나이 삼손은 젊은 날을 방황하며 지낸다. 유대민족인 그는 이방인 블레셋족의 아름다운 처녀 세마다와 결혼하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그녀의 친척들이 공격해오는 와중에 급기야 그녀는 살해당하고 만다. 복수를 결심한 삼손은...



12/10 왕중왕(상) (King Of Kings, 1961) ALL 100분

감독: 니콜라스 레이 주연: 제프리 헨터, 시오반 맥켄나, 허드 핫필드, 론 랜델, 비브카 린드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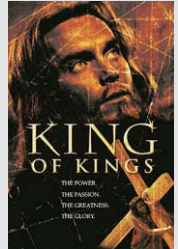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구세주에 관한 성서 예언의 성취를 유일한 희망으로 견디고 있다. 구세주가 오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유인한다.



12/17 왕중왕(하) (King Of Kings, 1961) ALL 71분

감독: 니콜라스 레이 주연: 제프리 헨터, 시오반 맥켄나, 허드 핫필드, 론 랜델, 비브카 린드포스

원로들과 바리새파인들은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칭하며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여긴 예수가 민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한다. 이러한 상황 중에 예수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가롯 유다.



12/24 프리처스와이프 (The Preacher's Wife, 1996) 12 124분

감독: 페니 마셜 주연: 덴젤 워싱턴, 휘트니 휴스턴, 코트니 B. 반스, 제니퍼 루이스, 로레타 드바인

가난한 동네의 목사 헨리 빅스와 그의 아내 줄리아. 줄리아는 성가대 리더이다. 노래도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의 줄리아는 남편이 너무 바빠 결혼 이후로는 파티에 참석할 시간조차 없다. 이런 결혼 생활에 지친 줄리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 어느 날 천사 더들리가 나타난다.



12/31 시스터 액트 (Sister Act, 1992) 12 100분

감독: 에밀 아돌리노 주연: 우피 골드버그, 매기 스미스, 캐시 나지미, 웬디 맥케나

리노의 카지노에서 삼류 가수로 일하는 들로리스는 우연히 암흑가의 거물 빈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녀는 어느 날 성가대의 지휘봉을 넘겨받게 되면서 성가대와 수녀원 전체, 아니 가톨릭 전체가 뒤바뀌는 운명에 이른다!



돌아온 탕자

Return of the Prodigal Son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Harmensz. Van Rijn)

캔버스 유화(Oil on Canvas), 1669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